

신문 보도 기사의 언어 표현 분석

김병홍(신라대)

<차 례>

1. 문제제기
 2. 헤드라인과 리드의 언어 분석
 3. 기사 본문의 어휘와 문장 분석
 4. 마무리
-

【벼리】 이 연구는 2016년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신문 보도 기사의 언어 표현을 분석한 연구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하였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헤드라인과 리드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대통령이 민심을 두 쪽 낸 사건으로 보고 ‘백지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김해공항 확장’을 제3의 대안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그런데 기사의 본문에서는 각 신문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은 주관적인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피동 표현과 주체가 생략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한겨레신문은 ‘백지화’로 인한 ‘지역 갈등’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것을 능동적인 어휘로 표현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본문이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중앙일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여 ‘김해공항 확장’이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도한다.

* 주제어 : 신문, 언어 표현, 헤드라인, 리드, 프레임, 이데올로기, 본문, 어휘, 문장

1. 문제제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종이신문의 미디어 이용률은 2011년 44.6%에서 16.7%로 줄어들어 무려 27.9%포인트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¹⁾ 이제 신문은 더 이상 주목 받는 미디어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겨우 50대 이상만이 22.4%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종이신문의 신뢰도 역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기자협회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에서 종합일간지는, 한겨레 6.9%(전체 3위), 경향신문 5.2%(공동 4위), 한국일보 2.3%(6위), 조선일보 1.6%(7위), 중앙일보 1%(9위)순이었다.²⁾

그렇다면 이렇게 종이신문의 이용률이나 신뢰도가 낮은데도 왜 우리는 신문의 가치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신문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는 JTBC와 <중앙일보>로 파악됐고,³⁾ 기자협회보 보도 역시 JTBC는 영향력 조사에서 4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15.4%, KBS 13.4%, 연합뉴스 8.2%, 한겨레 4.3%, SBS 3.3%, MBC 2%, YTN 1%순이었다.

기자협회의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1.6%의 신뢰도로 7위에 불과하였으나,

1) 이 조사에서 2017년 종이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은 2016년에 비해 각각 4.4%포인트와 4.2%포인트 감소하여 구독률 9.9%, 열독률 16.7%로 줄었다. 이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6년 대비 구독률(69.3%→9.9%)과 열독률(85.2%→16.7%)은 각각 59.4%포인트, 68.5%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2) 2018년 8월 15일 기자협회보는 JTBC 22.3%(1위), KBS 7.5%(2위), 연합뉴스 5.2%(공동 4위), SBS 4.3%(5위)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잘모름/무응답이 33.5%를 보여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3) <http://www.mfi.re.kr/pages/pdf/2017%20media%20awards.pdf> 10쪽을 참조하면, 2016년에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 1, 2위의 순위는 JTBC/중앙일보, 조선일보/TV조선로 2017년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지난해의 두 언론사의 점수 차이는 358점(JTBC·<중앙일보> 822점(203·83·47), <조선일보>·TV조선 464점(6298·82))이었으나, 2017년에는 605점으로 지난해보다 격차를 더 벌린 수치다.

영향력 조사에서는 15.4%의 응답을 얻어, KBS 13.4%(3위)보다 높은 2위의 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종이신문의 영향력은 우리가 종이신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비록 신문의 신뢰도가 낮긴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보다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위근·이홍천(2015:66~67)에서는 신뢰성 평가는 신문(평균 2.59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텔레비전(평균 2.52점), 인터넷(평균 2.29점) 순이었다며, 신문의 신뢰성은 약간 긍정적으로, 텔레비전의 신뢰성은 중립적으로, 인터넷의 신뢰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하였다.⁴⁾

이러한 종이신문의 미디어 환경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2017:151)은 한국 언론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1순위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가 30.7%로 가장 높았고,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체 국민의 입장보다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 태도' 14.9%, '특정 기업이나 광고주를 위한 편파적 태도' 9.3%, '특정 소수 언론 미디어에 의한 여론 독점' 8.8% 등의 순이었다. 1+2순위 응답에서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가 43.8%로 가장 높았고,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가 39.7%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체 국민의 입장보다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 태도' 30.3%, '특정 기업이나 광고주를 위한 편파적 태도' 21.6%, '특정 소수 언론 미디어에 의한 여론 독점' 19.4% 등의 순이었다.⁵⁾

김춘식(2018:9)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종이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업계와 학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문의 저널리즘 실천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신문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바라는 업계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김위근·이홍천(2015), 『신문 인체의 현재와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

5)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사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71.5%, 방송사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6.7%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문 기사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문제는 이제 신문 기사가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문사의 이익, 정권과의 관계, 지역과 중앙의 논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신문이 어떤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사를 생산하고 편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 신문은 상업적 목적이 뚜렷한 경향이 있다.⁶⁾ 물론 신문사의 상업성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신문의 기사를 통하여 독자에게 사회화 기능이나 오락 기능, 동원 기능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여타 대중매체와 차별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⁷⁾

츄스키(2002:28~29)에서는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사회가 항상 지배 개념을 강요할 때 지식인과 대중매체가 동원되어 선전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대중매체, 신문에는 도대체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강상현·채백(2002:33~35), 강준만(2001:75~77), 우한용 외(2003:78~80)를 참조하면, 대중매체 또는 신문의 기능은 대체로 5가지⁸⁾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보 제공 기능과 사회 조정 기능에 주목

6) 정연우(1993), 「상업성의 제물이 된 한국언론」, 『저널리즘 비평』 제11권, 77-80쪽, 한국언론학회. 김지완(1997), 한국신문의 상업성과 기자의식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7) 예컨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제작사가 제작비를 일부라도 조달하기 위해 특정 상품을 영화 및 방송의 소도구로 활용하는 PPL(product placemen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요 장면에 상품이 배치되어 관객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8) 뉴스를 통하여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정보 제공 기능,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정보의 의미를 설명·해석·평가하여 합의 창출, 여론 형성, 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 조정 기능, 사회적 유산을 전수하여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거나 지배적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화 기능, 즐거움을 주어 대중의 유희한 삶에 기여하고 기분 전환과 휴식을 통하여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오락 기능, 정치, 경제 개발, 노동, 전쟁 같은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거나, 종교 등의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행동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동원 기능이 5가지의 대중매체의 기능이다.

하여 이 연구를 진행한다.

정보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도 기사에서 사회 조정 기능을 우선하는 사실처럼 헤드라인이나 기사 본문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신문의 1면 톱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비판적 능력을 약화시켜 사회적 강자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해 순응하며 그것을 유지, 강화하는 사회 조정 기능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순기능을 찾으려면 언어 표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독자들이 특정한 기사의 언어 표현을 보고 그 기사가 어떤 의도로 보도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신문 기사로는 사회 조정 역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1면 톱기사의 보도 행태를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신문사가 지향하는 의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영남권 신공항 관련 기사 가운데, 2016년 6월 22일, 영남권 신공항 선정 발표 자료의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헤드라인(제목), 리드, 기사 본문을 분석한다.⁹⁾ 영남권 신공항 보도에서 각 신문사의 시각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 표현의 특성은 어휘, 문장 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고, 언어 표현의 특성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와 프레임을 실현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2. 헤드라인과 리드의 언어 분석

신문 보도 기사의 구조는 대체로 그 형식이 헤드라인으로 지칭하는 제목(title), 전문(lead), 본문(body)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독자가 기사를 볼 때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독자는 기사

9) 지금까지 영남권 신공항 관련 보도에 대한 연구는 양정혜(2011), 이상식(2012)가 주요 연구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두 연구 모두 초기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의 의도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였나를 분석하려는 이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를 읽을 것인가를 해당 기사의 제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문을 편집하는 사람은 기사의 제목에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전문 또는 리드로 불리는 기사의 첫 문장 역시 독자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의 제목과 리드의 언어 표현을 분석하는 것은 기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신문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2016년 6월 22일 4개 신문사의 1면 톱기사에 등장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 결과 발표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이날 보도된 4개 신문사(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 본문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 (1)과 같다.

(1) 영남권 신공항 선정 결과 발표 기사의 핵심 내용

- ㄱ. 누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 ㄴ. 언제: 21일
- ㄷ. 어디서: 정부 세종청사
- ㄹ. 무엇을: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 ㅁ. 어떻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
- ㅂ. 왜: 용역 결과 김해공항이 ▲공항 운영 ▲성장 가능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영향 ▲생태·환경성 ▲사업비 ▲실현 가능성 등 7가지 평가 기준으로 한 네 가지 평가 시나리오에서 1000점 만점에 817~832점을 받아 밀양(640~722점)과 가덕도(495~635점)보다 높음

실제 사건인 (1)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4개 신문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그리고 본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헤드라인

비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제1항 표

제의 원칙에서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언론의 상업성과 각양각색의 미디어가 뉴스를 경쟁하는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이러한 원칙만 고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¹⁰⁾

결국 미디어가 제시하는 수많은 뉴스나 정보를 독자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현안에 따라 신문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표현하며 독자에게 전달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2016년 6월 22일 1면 보도 기사 제목

- ㄱ. 경향신문: 표심 얻으려...민심 두 쪽 낸 5년
- ㄴ. 조선일보: 최대 6조원 아낀 '제3의 항로'
- ㄷ. 중앙일보: 경제성 따졌다,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
- ㄹ. 한겨레신문: 민심만 찢어놓은 '신공항 신기루' 10년

사건 (1)을 4개의 신문사에서 (2)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1면의 보도 기사로 처리하였다. 경향신문은 '민심'을 '두 쪽 낸' 것으로 헤드라인을 선정하였다. 이는 화자인 '정치권',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된 대통령(박근혜)과 정부, 여당이 '민심'을 '쪼갰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을 '5년'으로 밝히고 있어서 2012년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보면, '민심'을 '두 쪽 낸' 주체가 대통령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헤드라인 만으로도 충분히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1)을 보도할 것이 예측된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은 '아까다'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담은 주관적 어휘¹¹⁾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 3의 항로'라는 표현이 유치하려는 두 곳 중 어

10)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인터넷 신문이 양산되어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편집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이 시대에는 '낯시성 제목'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환경임을 인정해야 한다.

느 곳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도 헤드라인에 ‘따지다’와 ‘결론’ 같은 다소 주관적 어휘를 사용하긴 했지만, ‘경제성’이나 ‘확장’이라는 어휘가 제목의 중심을 잡고 있어서 중립적 태도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실 ‘따지다’보다는 ‘기준’과 같은 객관적 어휘를 사용했다라면 훨씬 더 중립적인 보도 태도로 인정될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사용한 ‘아끼다’와 ‘따지다’의 주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용역 결과를 발표한 기관이나 주무 장관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헤드라인은 ‘찢어놓다’, ‘신기루’와 같은 주관적 어휘의 사용으로 사건을 부정적인 태도로 보도하는데, 역시 ‘찢어놓다’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모두를 겨냥한 부정적 태도의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개 신문 모두 신공항 건설 계획의 발화시점을 과거형으로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완결형으로 헤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신공항 건설 계획의 발표를 현재 시점으로 제시하는 보도 기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는 과거형 ‘-었’을 분명히 노출하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는 과거시제 ‘-었’을 헤드라인에 노출하여 명백한 완결형으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곧, ‘경제성 따진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 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과거형을 사용한 것은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6년의 1차 보도 자료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의 발표에 대한 각

11) ‘주관적 어휘’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치 판단이 가능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6조원’은 실제로 공사를 해서 절약된 액수가 아니라 추정치이다. 그런데도 ‘줄다’라는 표현보다 ‘아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어휘로 분석한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책임으로 민심을 두 쪽 내거나 찢어놓아 갈라놓은 5년 또는 10년의 세월로 보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주관적 보도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액수 6조원과 경제성을 추구한 것으로 파악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중립적인 보도 태도이다.¹²⁾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분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곧,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취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가 주관적인 보도 태도를 취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기사보다는 분량보다는 짧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¹³⁾

결국 네 신문사의 헤드라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민심 분열’ 프레임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보도하고 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제적인 가치, 곧 ‘경제적 효과’ 프레임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보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2. 리드

리드는 신문의 보도 기사에서 맨 처음 독자에게 표현되는 문장이다. 대체로 전체 기사를 요약하거나 헤드라인에서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가 기사를 열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문 기사의 리드는 육하원칙의 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배열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글이기 때문에 리드 한 문장으로도 기사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12) 이는 기사 본문의 어휘 빈도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4개 신문사의 기사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최상위 빈도를 차지하는 어휘는 ‘신공항’과 ‘김해공항’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관련 어휘 빈도는 경향신문 19회(정부 7회, 대통령 5회, 이명박 3회, 박근혜2회, 청와대 2회), 한겨레신문 11회(정부 5회, 이명박2회, 박근혜2회, 대통령1회, 청와대1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각각 정부 2회만 나타나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13) 경향신문 22문장 358어절, 한겨레신문 16문장 330어절, 중앙일보 17문장 267어절, 조선일보 10문장 233어절의 분량으로 기사 본문이 작성되어서 어절 수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사의 리드

- ㉠. 경향신문: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21일 다시 ‘백지화’됐다.
- ㉡. 조선일보: 10년을 끝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터에 공항을 짓기보다는 기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제3방안으로 결정됐다.
- ㉢. 중앙일보: 10년 넘게 논의돼 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제3의 길’로 결론 났다.
- ㉣. 한겨레신문: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동안 진행된 논란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 내려졌다.

사실 (1)은 ‘정부(장관)’ 또는 ‘연구 용역을 수주한 기관(ADPi)’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한 사건이다. 따라서 리드에서는 주체를 밝히고 서술어를 능동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 표현이다. 하지만 각 신문사는 자신들의 의도를 언어 표현에 포함하기 위하여 ‘백지화되다, 결정되다, 내려지다’와 같은 피동형 서술어, 또는 ‘나다¹⁴⁾’를 서술어로 사용한 것을 (3)에서 볼 수 있다.

각 신문사의 리드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경향신문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사건을 문장의 주요 내용으로 ‘다시’를 서술어 앞에 제시한다. 이것은 이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2011년에 한번 ‘백지화’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일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제3방안으로 결정’된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리드를 구성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중립적으로 적시하고, ‘끝어온’과 같은 주관성이 높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터에 공항을 짓기’(=신공항)보다는 ‘기존’의 공항(=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제

1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다⁰¹⁾’의 뜻풀이를 참조하면, “ 「6」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예) 결론이 나다.”로 되어 있어서, ‘나다’ 역시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방안'이라고 명명하여 객관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리드에는 '새로운 터'라는 어휘가 등장하여 '독자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건설 희망 지역이 둘로 나뉘져 있을 때, '제3방안'은 기존의 두 희망 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¹⁵⁾ 하지만 조선일보의 리드는 '새로운 터'의 공항(=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대립을 시켜서 '대폭 확장'한 '기존 공항'을 '제3방안'으로 제시한다.¹⁶⁾ 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유치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제3방안'이 두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처럼 '신공항 건설이 제3의 길로 결론'난 것을 주요 사건으로 리드를 구성한다. 다만 조선일보가 '기존'의 김해공항을 '제3방안'으로 명시한 데 비해, 중앙일보는 '제3의 길'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가운데 어느 쪽도 '아닌'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0년'의 기간은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넘게'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매우 오랫동안 '신공항 건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긴 시간의 '신공항' 문제를 '논의'라는 중립적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이 '갈등'의 세월이 아님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다.¹⁷⁾

한겨레신문은 '논란이 결론 내려진' 사건을 핵심 의제로 하여 리드를 구성하였다. '10년'의 기간과 사건이 지속된 상황을 '진행'으로 표현하여 매우 중

15) 예컨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기존' 유치 희망 지역인 가덕도나 밀양이 아닌 제3방안으로 ○○지역이 결정됐다.>라는 문장을 리드로 가정해 보면, '새로운 터'는 '제3방안'의 동의어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이 때문에 어휘 '확장' 앞에 '대폭'을 수식어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곧, '대폭'의 의미 '큰 폭이나 범위'와 '확장'의 의미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힘'에는 부분적으로 '크다'라는 뜻을 중복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의 공항을 최대한 새로운 공항으로 인식시키기 위함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17) 만약 이 리드에서 '논의' 대신 '논란'이라는 주관적 의미가 포함된 어휘를 사용하면 '신공항 건설 계획'을 갈등의 문제로 제시할 수가 있다. 실제로 한겨레신문은 리드에서 '논란'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립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사건을 ‘논란’이란 주관성이 매우 높은 어휘로 표현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갈등이 있었음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결과가 ‘백지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독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리드로 이해된다. 곧, 조선일보에서 말한 ‘기존 김해공항 대폭 확장=제3방안’이 한겨레신문에 오면 ‘기존 김해공항 확장=사실상 백지화’가 되는 것이다. 이 두 리드에서 차이는 단순히 어휘에서 ‘대폭(조선일보)’과 ‘사실상(한겨레신문)’이 사용된 것뿐이다. ‘대폭’과 ‘사실상’의 의미 차이가 ‘제3방안’과 ‘백지화’로 달리 명명한 것이다. ‘대폭’과 ‘사실상’의 의미 차이가 ‘제3방안’과 ‘백지화’로 달리 해석되는 이유는 두 신문사의 의도가 리드에 반영된 것 이외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한겨레신문의 리드에서는 주체도 ‘논란’으로 나타나서 앞선 세 신문사의 ‘계획’(경향신문)이나 ‘건설’(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부정적 어휘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각 신문의 리드는 육하원칙의 구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경향신문은 짧은 리드이지만 ‘무엇이—언제—어떻게’의 구조로 리드가 작성되었고, 나머지 세 신문의 리드에서는 ‘무엇이—어떻게’가 주요 정보로 제시되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리드는 ‘김해공항 확장’을 ‘제3방안’이나 ‘제3의 길’로 표현하면서 마치 신공항이 중립적 위치에 건설되는 것처럼 부산과 대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곧, 신공항 건설 연구 용역 발표를 ‘제3의 방안¹⁸⁾’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18)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칭한 ‘제3방안’과 ‘제3의 길’은 과연 제3의 대안인가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곧,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은 ‘가덕도’, 대구는 ‘밀양’을 신공항 건설 지역으로 결정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는 ‘김해공항’의 대폭 확장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과연 대구 지역에서 ‘제3의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밀양을 주장한 대구 지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부산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용역 결과 발표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체를 '백지화' 프레임으로 만들어 각 지역 주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나 영남권은 2016년 정부의 지지층이 다수인 지역이라 두 신문사의 의도는 지역적 지지기반을 와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3. 기사 본문의 어휘와 문장 분석

독자들이 기사의 본문을 접할 때는 이미 헤드라인과 리드를 읽고 나서이다. 따라서 본문은 헤드라인, 리드와 밀접한 관련 하에 기술되어야 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의 핵심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 완결성, 긴밀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보도 기사의 경우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 기사에서 표현되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3.1.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보도 기사는 (4)와 같이 모두 10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그런데 이를 크게 보면, ①단락, ②~⑧단락, ⑨~⑩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②~⑧단락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도하는 내용이다. 육하원칙으로 보면 대체로 '왜', '어떻게', '누가' 등이 '연구 용역 담당자'나 '정부'의 '견해'나 '향후 계획'을 내용으로 제시된다. 발표 사실과 관계자 인터뷰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히 신문사의 주관적인 의도를 담아내는 부분이 아니다. 주관적인 언어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①단락과 ⑨~⑩단락의 내용인 를 살펴본다.

1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2256005&code=920100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제시된 객관적 사실 표현 부분은 생략한다.

(4)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본문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21일 다시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4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됐던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공약을 통해 되살려냈지만, 이날 발표로 5년여 만에 두 번째 백지화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여권 주도로 ‘신공항 대선공약→백지화→대선공약→백지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동안 영남이 절반으로 갈라지는 등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국력만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①단락: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논란>

<②단락: 왜, 연구 용역 결과>

<③단락: 왜, 어떻게, 연구 용역 결과>

<④단락: 왜, 연구 용역 결과>

<⑤단락: 왜, 용역담당자 신공항 부정적 견해 인용>

<⑥단락: 어떻게, 확장안 긍정 의견>

<⑦단락: 어떻게, 확장안 향후 계획>

<⑧단락: 누가, 정부 입장, 향후 계획>

하지만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놓은 후 ‘대구·경북 대 부산’ 간 지역갈등이 극점으로 치달을 때까지 갈등관리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과 발표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⑨단락: 누가, 논란>

여권 주류 ‘원죄론’도 제기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됐던 신공항을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되살려놓고 다시 백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등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영남권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신공항 공약을 해외 용역기관 손을 빌려 공수표로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⑩단락: 누가, 왜, 논란>

먼저 어휘를 살펴보면, 주관적인 의도를 가진 어휘가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①단락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휘는 사용 빈도가 높은 ‘백지화’(4회)

와 ‘대통령’(4회), ‘대선공약’(3회)이다. ①단락은 리드가 포함된 기사의 첫 단락인데,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보도 기사에서 독자가 가장 주목할 어휘가 ‘백지화’와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백지화’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또한 문장 구조에서 ①단락은 모두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되다’류를 포함한 피동 표현이 무려 7회(백지화되다 2회, 무산되다, 반복되다, 갈라지다, 심화되다, 낭비되다)이다. 신문 기사에서 피동 표현을 더러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인 ①단락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신문사의 의도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곧, ①단락의 핵심 어휘인 ‘백지화’, ‘대통령’,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독자는 충분히 <주체(대통령) - 객체(대선공약) - 서술(백지화)>의 구조와 내용으로 기사 프레임을 형성할 것이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공항을 무산하고>, <~~과정을 반복하고>, <영남을 절반으로 가르고>, <지역갈등을 심화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주체를 신문사 스스로가 명백히 제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프레임을 이데올로기로 강화하기 위하여 이 보도 기사에는 부정적인 어휘와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이 취소된 것을 <다시, 두 번째, 반복>과 <백지화되다, 무산되다, 반복되다, 갈라지다, 심화되다, 낭비되다>, <경제성이 없다²⁰⁾, 비판이 나오다>와 같은 표현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부정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만, 명확한 표현의 주체

20) ‘경제성이 없다’의 주체는 ‘이명박 대통령 (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경제성이 없’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한 것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용하여 보도하려면 ‘무산되다’(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없어지다. 또는 그렇게 흐지부지 취소되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다’와 같은 능동적인 어휘를 사용했을 것이다.

는 드러나지 않는다.

⑨~⑩단락에서의 언어 표현도 ①단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부정적 어휘인 ‘비판’(2회), ‘원죄론’, ‘백지화’, ‘갈등’(3회), ‘극점’, ‘치단다’, ‘내팽개치다’, ‘무책임하다’, ‘무산’, ‘낭비’, ‘불필요하다’, ‘공수표’ 등이 모두 15회 사용되어 정부의 정책 발표 자체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피동 표현 역시 5회(제기되다 2회, 비판을 받다, 무산되다, 비롯되다)로 나타난다. 그런데 ⑨~⑩단락에서는 ‘주재하다, 무책임하다, 백지화하다, 초래하다, 낭비하다’와 같은 능동 표현도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능동 표현의 주체는 ‘박 대통령’(주재하다, 무책임하다)과 ‘여권 주류’(백지화하다, 초래하다, 낭비하다)이다.

여기서 ‘지역갈등을 초래하다, 국력을 낭비하다’는 ①단락에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국력만 낭비됐다’와 같이 피동 표현으로 나타난 부분이었다. 왜 ‘지역갈등-심화’와 ‘국력-낭비’를 ①단락에서는 ‘피동 표현’으로 나타내고, ⑩단락에서는 그 주체가 ‘여권 주류’인 ‘능동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가. 그것은 주체의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곧, 기사 내용을 보면, ①단락에서는 ‘지역갈등-심화’와 ‘국력-낭비’를 한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여권’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⑩단락에서는 그 주체가 ‘여권 주류’로 ①단락에서보다는 범위가 줄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여권 주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비판이/원죄론이 제기된다, 해석도 있다>의 표현에서도 여전히 ‘제기하’거나 ‘해석한’ 주체는 없다. 이처럼 주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언론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프레임으로 보도 기사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어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주체 표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동 표현과 주체가 생략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3.2.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보도 기사는 4개의 신문사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10문장 233어절의 분량으로 기사 본문이 작성되어서 경향신문의 22문장 358어절과는 어절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기사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사실을 기반한 보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5)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본문²¹⁾

<10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터에 공항을 짓기보다는 기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제3방안으로 결정됐다.>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따져봤을 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짓기보다는 '김해 신(新)공항' 건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①단락: 왜, 내용: 긍정 의견>

<②단락: 어떻게, 내용: 연구 용역 결과, 향후 계획>

<③단락: 어떻게, 왜,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④단락: 왜,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⑤단락: 왜, 내용: 연구 용역 결과>

(5)에서 기사 본문은 모두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제외하면 리드를 포함한 하나의 단락만 남을 뿐이다. ①단락에서도 리드를 제외하면, '훨씬 유리'와 같은 표현만 주관적인 의도를 담은 어휘로 분석할 수 있다. 단락 ②부터 ⑤까지는 실제 사건의 발표 내용 가운데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매우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2/2016062200309.html

②~⑤단락에서 사용된 서술어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⑤단락의 전체 8문장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용²²⁾한 서술어 ‘말하다’(②, ③, ⑤단락)는 모두 3회가, ‘밝히다’(②단락)는 1회 사용되어 모두 4문장의 서술어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정이다’(②단락), ‘추정되다, 예상하다’(④단락)는 발표 내용에서 김해공항의 ‘건설 계획’, ‘건설 비용’, ‘승객 수요’를 예측한 부분의 서술어이다. 다만, ④단락의 ‘제치다’를 서술어로 사용한 경우에는 과거시제 ‘-었’을 노출하고, 수식어로 ‘큰 점수 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주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수가 김해공항(817~832점), 밀양(640~722점), 가덕도(495~635점)로 적시돼 있어서 최대 337점, 최소 110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표현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분석을 보면, 조선일보는 ‘김해공항의 확장’이 ‘비용을 아낀 제3 항로’라는 프레임으로, 기사의 본문 대부분을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립적인 어휘를 서술어로 주로 사용하였고, 이는 기사가 객관적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할 의도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리드를 포함하여 모두 17문장으로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 기사를 보도하였다. (6)에서 보는 것처럼 리드를 포함한 ①단락에서만 ‘극한 대립’과 같은 주관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처럼 중립적인 어휘를 기사 본문에서 많이 사용할 것

22) 물론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하는가에 따라서 신문사의 의도를 표출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치 기사의 경우 각 정파의 이익에 따라 정치인이 하는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를 ‘따옴표 저널리즘’(이준웅 외, 2007:67)이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 기사와 아닌 연구 결과 발표 보도 기사에서 발표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하다, 밝히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중립적 표현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으로 파악되는 부분이다.

(6)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본문²³⁾

10년 넘게 논의돼 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제3의 길’로 결론 났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치권과 영남권이**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여왔으나 정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판단을 선택했다.** <①단락: 어떻게, 왜, 내용: 긍정 의견>
 <②단락: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③단락: 왜, 어떻게,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④단락: 어떻게,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⑤단락: 왜, 내용: 연구 용역 결과, 확장안 긍정 의견 인터뷰>
 <⑥단락: 어떻게, 내용: 확장안 향후 계획, 긍정 의견 인터뷰>
 <⑦단락: 왜, 어떻게, 내용: 부산지역 당사자 불만>
 <⑧단락: 왜, 어떻게, 내용: 대구지역 당사자 불만>

(6)의 본문에서 사용된 서술어를 살펴보면, 모두 17문장 가운데 9문장이 서술어를 ‘말하다’(5회, ③, ⑤, ⑥, ⑧단락), ‘발표하다/설명하다/(고) 하다’(각 1회, ②, ⑦단락)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인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 객관적인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기사의 인용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연구 용역 결과’ 발표의 인용(②, ③, ④단락), ‘김해공항 확장’의 긍정적 의견 인터뷰 인용(⑤, ⑥단락),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부산지역(⑦단락)과 대구지역(⑧단락)의 부정적 인터뷰 인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예산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⑤단락)나 ‘반발이 나왔다’(⑦단락)와 같은 주관적 가치를 표현한 부분이 나타난다.

중앙일보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김해공항 확장’ 찬성과 반대 이데올로기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결과 발표(②~④단락)

23) <https://news.joins.com/article/20202731>

이후에 ‘김해공항 확장’을 찬성하는 전문가 의견(⑤~⑥단락)과 신공항 건설 계획 취소에 대한 불만 의견(⑦~⑧단락)을 제시함으로써 대립적 구도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①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마치 ‘정치권’은 ‘밀양’을 ‘영남권’은 ‘가덕도’를 지지하여 ‘극한 대립’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각 지역을 지지하는 ‘영남권’ 및 ‘정치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기사에서 이렇게 오해 가능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영남권’ 내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현실을 마치 ‘정치권’과 ‘영남권’이 대립하는 것으로 기사화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것은 이 기사가 ‘김해공항 확장’ 찬성과 ‘신공항 건설 계획’ 취소 반대의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이데올로기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본문 ①단락~④단락에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⑤단락과 ⑥단락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김해공항 확장’이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와 대립적으로 ⑦단락과 ⑧단락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관계자들이 이번 정부의 발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터뷰를 기사의 본문에 포함하여 마치 ②~④단락의 ‘경제성을 추구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객관적인 어휘를 서술어로 사용하면서 중립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해공항 확장’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기사를 쓴 것이다.

3.4.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하여 5단락 16문장으로 구성하여 보도 기사를 작성하여 전달한다. 객관적인 연구 용역 결과를 제외한 내용을 (7)에서 제시한다.

(7) 한겨레신문 1면 머리기사 본문²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동안 진행된 논란이 기존 김해 공항 확장이라는 사실상 ‘백지화’로 결론 내려졌다. 부산이 주장해온 가덕도도, 대구·울산·경북·경남이 지지해온 경남 밀양도 아닌 ‘제3의 대안’으로 귀결된 것이지만, 극심한 지역 갈등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한 차례 백지화한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꺼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과 관리능력 부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①단락: : 무엇을, 어떻게, 왜, 내용: 논란>

<②단락: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내용: 연구 용역 결과>

<③단락: 누가, 왜, 내용: 정부 입장>

<④단락: 왜, 어떻게, 내용: 대구, 부산 당사자 불만 인터뷰 인용>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정치권도 책임론의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미 1년 전 백지화된 영남권 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다시 꺼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재추진에 나섰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별로 뭉쳐 공항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연구용역의 평가항목 등 기본 원칙도 공개하지 않아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고, 영남권이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뿔어져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방관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정부가 국민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부산과 대구·경북 등의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이런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⑤단락: 왜, 어떻게, 내용: 논란, 부정의견 인터뷰>

한겨레신문은 (7)을 보면, ②~④단락은 발표 내용, 발표 내용에 대한 각 지역의 인터뷰 등을 담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②~③단락의 서술어 ‘밝혔다(3회), 방안이다, 차례였다’와 같은 어휘

2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171.html

는 매우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④단락에서는 서술어 ‘반발했다(2회), 주장했다’와 같은 주관적인 어휘가 사용됐는데 이는 ‘신공항 건설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의 대표 인터뷰를 기사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락①과 ⑤에서는 주관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부정적인 보도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4회), ‘백지화’(4회), ‘후유증’, ‘부재’, ‘후폭풍’, ‘불신’, ‘혼란’, ‘자초하다’, ‘찢어지다’, ‘방관하다’, ‘비관하다’와 같은 부정적 어휘를 모두 17회나 사용하였다. 또한 본문 첫 문장(리드)에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향신문과 같이 ‘백지화’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는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본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반해, 한겨레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 ‘관리능력 부재’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과 (불신과 혼란을) ‘자초하다’, (찢어져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방관하다’와 같은 능동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책임을 ‘특히’(2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경향신문에서 ‘백지화’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권’ 등으로 다양화한 데 비하여, 한겨레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로 단순하게 제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표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곧, 한겨레신문은 ‘백지화’로 인한 ‘지역 갈등’의 책임을 과거에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고 현재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지역 갈등’에 대한 책임 역시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독자에게 전하러 한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역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김해공항 확장’이 ‘제3의 대안으로 귀결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는 표현은 본문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백지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마무리

신문 보도 기사에 표현된 언어 형태는 신문사의 의도를 기사에 포함할 때 사용하는 언어 기제이다. 그런데 신문사의 의도는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를 언어 기제를 통해 교묘하게 감추면서 기사를 작성한다. 신문사는 사회적 이슈의 현안에 대하여 자사의 이익에 따라 논리를 펼친다. 온라인 저널리즘이 발달하여 특수 집단의 이기적인 관점을 뉴스화, 가짜 뉴스화 하는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신문사도 열성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 각 사회적 현안에 따른 신문사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무려 5차례나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²⁵⁾이었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 선거에 따라 공약과 취소가 반복된 사건에 대하여 각 신문사의 시각을 분석하면, 신문사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기제를 사용하는가를 밝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가장 중심이 되는 2016년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먼저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이다. 앞으로 2011년 1차 취소 보도 자료 및 2018년 3차 보도 자료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계획이다.

미디어는 윤리의 측면에서는 진실성, 불편향성, 완전성,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윤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를 수용하고

25)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약으로 제시(1차례)하고,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취소(2차례)한 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여당과 야당이 공약으로 제시(3차례)하였다. 2016년 6월 두 번째로 취소(4차례)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부산시장)에서 다시 공약(5차례)으로 내세웠다. 이 연구를 기초로 차후 각 시기에 따라 신문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도 기사와 사실에 언어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언어가 주요 표현 수단인 신문이 보도하는 기사를 좀 더 비판적이고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언어 표현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언어 표현의 관점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보 제공 미디어로서 신문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 리드, 본문에서 사실성 어휘, 중립적 어휘, 주관적 어휘, 객관적 어휘 등을 가려내고 그것이 왜 사용되었는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강상현·채백 엮음(2002),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 강준만(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 김위근·이홍천(2015), 『신문 인쇄의 현재와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지완(1997), 「한국신문의 상업성과 기자의식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춘식(2018), 「종이신문 결합열독률마저 하락...여론 영향력도 감소」, 『신문과 방송』 1월, 6~11쪽, 한국언론진흥재단.
- 노암 촘스키/강주현 옮김(2002),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 양정혜(2011), 「동남권 신공항 이슈의 프레임링을 통해 본 언론의 지역 이기주의」,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1호, 231~272쪽.
- 우한용 외(2003),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식(2012), 「지역 갈등 이슈의 뉴스 프레임 구성에 대한 연구」, 계명대박사논문.
- 이준웅 외(2007), 「기사 제목에 포함된 직접인용부호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64~90쪽. 한국언론학회.
- 정연우(1993), 「상업성의 제물이 된 한국언론」, 『저널리즘 비평』제11권, 77~80쪽,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경향신문 www.khan.co.kr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s://joongang.joins.com/>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118 우리말연구 55집 (2018. 10.)

김병홍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우) 46958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괘법동)

051-999-6269, 010-9359-0871

wetheroad@silla.ac.kr.

접수 일자: 2018년 9월 15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8년 10월 11일

계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1일

<Abstract>

An Analysis of Linguistic Expressions in Newspaper Headings

Kim Byoung-Hong(Silla univ)

This paper analyses linguistic expressions in newspaper headings on ‘An Announcement of the Research Findings of A New Airport Construction Plan’ in 2016. As online journalism prevails these days, specific groups’ selfish perspectives are made news. As a result, it is natural for existing newspapers report news reflecting their own interest and their enthusiastic readers’ views. Thus, articles of four newspapers concerning ‘An Announcement of the Research Findings of A New Airport Construction Plan’ naturally revealed different viewpoints.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eadlines of the four newspapers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Kyunghyang Shinmun and the Hankyoreh show subjective attitudes towards the announcement as they regard it as an event tearing apart or disrupting the public sentiment since then president did not deal the issue well for over 5 or 10 years. The Chosunilbo and the JoongAng Ilbo take neutral attitudes, as these media grasp that the plan can save around 6 trillion won in pursuit of economic feasibility.

Second, the leads in the given newspapers also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Kyunghyang Shinmun and the Hankyoreh induce the residents of neighboring regions to have negative views of the president and political circles by making a ‘nullifying’ frame regarding the construction plan of ‘a new airport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The Chosunilbo and the JoongAng Ilbo appear to make people in Busan and Daegu recognize that a new airport will be built on a neutral site by suggesting ‘an expansion of Gimhae Airport’ as a third alternative.

Third, the article texts of four newspapers express each media’s perspective. The

Kyunghyang Shinmun uses subjective words aggressively in its article and mainly utilized passive voice and subject-omitted expressions in order to avoid revealing clear subjects. The Chosunilbo chiefly uses objective vocabulary as predicative by citing some contents from the announcement. While the JoongAng Ilbo also writes mostly neutral expressions by using objective words as predicative, it leads the public to see 'the expansion of Gimhae Airport' positively. The Hankyoreh delivers the case negatively to the readership by using direct directive expressions of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 Key words : newspaper, linguistic expression, headline, lead, frame, ideology, text, vocabulary, sentence